

강기정 시장 “돌봄,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광주시장, 국회 토론회 참석…돌봄국가책임제 정책 방향성 제시
‘광주식 보편 돌봄’ 일자리 증대·의료비 절감 효과…전국 모델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내놓은 ‘돌봄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대표정책으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을 넘어 아시아권 돌봄 정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자치단체는 돌봄의 주체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 배경으로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광주시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가정방문 5만6000여 건(신청 3만3000건, 의무방문 2만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의 광주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광주시는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매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는데,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가사지원을 비롯한 방문 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

소, 방역·방충 서비스 등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자치단체와 국회 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또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뼈대로 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년여간의 통합돌봄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의 가치도 새롭게 정의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지고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정의했다.

강 시장은 또 통합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 설명도 잊지 않았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쌓여 있는데도 치매 때문에 혼자 쓰레기더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며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큰 울림을 줬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 정책의 가치

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또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

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김치, 여의도 이어 압구정 공략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서 7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마련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김치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6월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한 첫 ‘광주김치 팝업스토어’의 성공에 이은 후속 기획 행사로, 프리미엄 백화점의 핵심 소비계층을 겨냥해 광주김치의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광은주 광주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와 빛고을김치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해 정통 전라도식 프리미엄 광주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1인용 소포장 김치와 캠핑용 김치 등 제품 구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광주김치의 시장성과 상품성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백화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판로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한 첫 팝업스토어에서 ‘김치 팝업’이라는 신선한 콘셉트로, 김치 응용요리, 광주김치 굿즈, 김치대회 대통령상 수상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일감 줄어든 ‘철강·석유화학’ 고용 지원

전남도, 근로자 안심패키지 등 신청 접수…11월까지 진행

전남도가 업종 악화로 일감이 줄어든 철강·석유화학 산업분야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3일 “철강, 석유화학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은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4가지다.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최근 2년 내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800여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2년 이내)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578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이다.

안심패키지는 지원자가 마감된 상태로 이후 신청자는 예비 후보자로 선(先) 신청자가 탈락할 경우 자격을 승계하게 된다. 이밖에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150만원·210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여수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 등이 지원 받게 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취약계층 ‘온열 질환’ 예방 총력

무더위 쉼터·경로당 운영 시간 연장…냉방비 추가 지원도

전남도가 최고 기온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잇따르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 등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3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어르신지킴이단을 통해 온열질환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폭염 예방 교육 의무 실시와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도비 9억 5000여만 원을 긴급 편성, 경로당 1개소당 1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올해 긴급 부식비를 경로당에 각 30만원씩 총 2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

을 부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사업장내 온열질환 예방에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온열질환 예방 포스터를 제작, 배부했다. 포스터에는 ‘폭염 대응 5대 기본수칙’과 작업 중지, 응급상황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이 담겼다.

전남도는 포스터 배부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염포도당, 냉찜질팩 등 온열질환 예방과 긴급처치 물품이 포함된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